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목자수련회(5/25)
 -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6/3~5, Jama 본부, Texas)
 - GTD 208기(6/8~11, 여자기, 렉터: 모경혜 집사)
 - 중보기도 용사의 밤 및 목자 부흥의 밤(6/30, 8:00pm)

가정교회 예배안 2025. 05. 18

5월 셋째 주: 예수님처럼 효도합시다(요한복음19:25-27)

■ Welcome

부모님과 함께 했던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요한복음 19:25~27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서론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예절이나 문화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엡 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명령은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법이다. 성경 속 효자의 대표로는 이삭, 요셉, 룻이 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효도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효도의 본이다.

■ 관찰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나?

해답 1. 예수님은 마음으로 효도하셨다.(26절)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히: 이샤)**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장차 뱀, 곧 사탄의 권세를 꺾을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때 사용된 ‘여자’(구약 히브리어: ‘이샤’, 신약 헬라어: ‘휘나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자여(헬: 휘나이)’와 같은 뜻의 단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단지 육신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아들이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신 ‘여자여’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언약과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장면이 딱 두 번있다. 이 두 장면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다.

1)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헬: 휘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2)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십자가상에서(19:26)

❁ 적용 질문 1

1)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줄 것 같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섬겼던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해답 2.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섬기셨다.(27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신 장면이다.

왜 요한이었을까? 물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일찍 순교했고, 요한만이 90세가 넘도록 살아 있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요한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하였다.

효도는 철학이 아니며 사상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효도의 본을 보이셨다.

* 이순신 장군의 지극한 효심

그의 난중일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107회나 기록되어 있으며 전쟁 중에도 병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든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위로하였다.

“백발이 부수운 채 나를 보고 일어나 앉으시는데, 기력이 쇠하여 며칠을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일, 사업, 바쁜 일상 등으로 부모 섬김을 미루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만약 아직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적용 질문 2

- 1) 부모님을 섬기면서 가장 아쉬운 것 혹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나요?
- 2)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면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3.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효도하셨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눅 2:51)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마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순종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와 순종이다. 예전과는 달리 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다.

마더스 데이를 맞이한 오늘, 세상의 풍속을 따라 부모를 외면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마음부터 바뀌 다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적용 질문 3

- 1)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던 아쉬운 기억을 나누어 봅시다.
- 2)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나누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